지구촌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실천

보건의료에 앞장서는 KOICA

지난 19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대외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초청연수,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NGO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이 KOICA를 통해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KOICA 봉사단원의 신체검사 및 임기만료단원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국내 기생충관리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유기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글 편집부
자료제공 한국국제협력단 홍보팀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노력

가난과 질병, 재난 등은 해당 국가나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0년 9월, UN 천년정상회의를 통해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 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등 8대 분야를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KOICA는 이러한 행보의 선두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1991년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KOICA는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우리가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04년에 발생한 쓰나미 사태 등과 같은 해외긴급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증명되어 왔다.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매진

KOICA가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교육 · 보건의료 · 행정제도 · 농촌개발 · 정보통신 · 산업에너지 · 환경 등 7개 분야이다. 이중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 전 세계적으로 연간 1,100만 명에 이르는 아동사망자 중 98%가 개발도상국의 아동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KOICA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전염병백신 개발지원, 의료시설 및 연구기관 건립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온 KOICA는 개도국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베트남 Saint Paul 병원에 한국인 의사를 파견하는 등 Korea Clinic을 설립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내과와 소아과를 중심으로 연평균 1만 5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주말마다 하노이 및 근교를 중심으로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 베트남의 빈곤층 및 일반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2006년부터 Saint Paul 병원자리에 한국 · 베트남친선병원 건립을 추진해 온 KOICA는 2007년 12월3일, 염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개원된 한국 · 베트남친선병원은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6개 분야에 대한 진료소 및 수술실, 입원실과 통역원 등을 갖춘 국제종합 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KOICA는 베트남을 포함, 여러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아시아 6개국에 예방백신사업 지원

국제사회가 천년개발목표인 HIV, AIDS, 말라리아 및 여타 질병 퇴치를 위해 예방접종 백신 보급 등 전염병 예방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부응해 KOICA

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베트남 · 태국 · 필리핀 · 캄보디아 · 미얀마 · 인도네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250만 달러의 원조사업을 실시했는데, 예방접종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국가 규제기관 개보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는 보다 많은 아시아 6개국 국민에게 백신 예방접종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자체 백신 생산량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능을 보장할 만한 현지 백신 생산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조사업 결과, 태국식품의약청으로부터 결핵예방백신인 BCG 백신 생산허가를 얻었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백신생산 및 규제관리 기술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개발도상국이 저렴한 백신을 자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전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유기적 협업

KOICA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는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KOICA 일반봉사단원의 신체검사와 임기만료단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건협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데 일반봉사단원의 신체검사의 경우 총 5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세부적으로 실시, 원활하고 안전한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건협의 '캄보디아 학생 장내 기생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KOICA의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2005년 NGO 사업 사전조사단 파견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캄보디아에 기생충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국립 기생충증, 곤충병, 말라리아 관리센터 소장 등 5명의 캄보디아 보건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생충 관리 성공사례를 전수하는 한편 건협의 건강증진사업 실무현장 견학 및 양국 건강증진사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학생 장내 기생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은 작년 말 제2차 전문가 사업단을 현지에 파견, 기생충감염실태 및 보건교육과 홍보비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생충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KOICA는 지난 온 세월 속 우리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건협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다.